

# 해양음악으로 본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과 음악사적 의미

김세종\*\*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
  - 2.1 <동동>의 악부유입과 유래
  - 2.2 <동동>의 악부유입 시기
3. <동동>의 음악사적 의미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국악학계에서는 지난 2005년도 국립남도국악원 주최로 “해양음악과 문화”란 제하의 학술회의가 한차례 열려 해양음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바다와 음악을 주제로 한 이모저모가 논의되어 바다음악의 열개를 살필 수 있었다.<sup>1)</sup> 특히 기조발표로 나선 한명희교수는 “이미 상고시대부

\* 이 논문은 한국고시기분학회와 (사)온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학술대회(2008. 6.2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중 게재 논문이 아님.

\*\* 동국대학교

터 바다는 식생활의 터전이었으며, 인적, 물적 교류의 열린 공간 이었다”고 강조한 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해양음악’이란 용어의 문제를 짚어 주면서 그 대안으로 ‘해안음악’이라는 용어의 타당성을 전제로 ‘해안지방에 유포되어 있는 음악을 다양한 연구 주제로 접근해야 하고, 또 해안음악의 유포양상과 전파 경로, 해외교류사적 측면에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요즘같이 옛 문화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이 학문 연구에 있어서도 골이 깊어 사적 연구를 기피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쉬이 넘어갈 수 있는 해양음악의 사적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학문에 있어 사적 연구는 역사와 과거와의 관계에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 말씀에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내일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고 했다. 이런 말을 귀담아 보면, 필자는 여수지역이 안고 있는 바다와 음악, 그리고 문화 속에서 얽혀져 있는 역사성 연구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 더욱이 말해 여수가 위치한 남쪽 바다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쌀 문화를 비롯한 멀리 아라비아나 인도 등지의 남방문화가 유입되는 관문이었던 뿐만 아니라 왜구의 침략이 자랐던 잔상이 물적 풍요와 삶의 애환, 그리고 승리의 기쁨 속에서 노래가 만들어지고, 형성된 문화는 확실히 다른 지역에서 살필 수 없는 또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오늘 발표될 주제 역시 기실 여수지역에 발생적 연원을 두고 있는 동동을 주목하였다. 아마도 동동은 위에서 언급한 왜구의 침략으로 인한 승리의 기쁨이 만들어낸 백성들의 애환과 기쁨이 함께 점철된 환희의 송가

1) 제2회 국립남도국악원 학술회의, 『해양음악과 문화』(남원:국립남도국악원 세미나실 및 진악당, 2005.7.15~16)란 제하의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기조발표 한명희, 바다와 음악, 그 적합한 용어모색과 연구 범주, 제1주제 홍석준,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해양문화의 특징과 의미, 제2주제 김인숙, 서해안 노젓는소리의 가장방식과 박자구조, 제3주제 김순제, 주대소리와 뱃노래의 관계, 제4주제 이보형, 해양 의식음악의 종류와 특성 등이 발표되었다.

가 아닐까 한다.<sup>2)</sup> 나아가 이러한 송가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바꿔 놓은 이풍역속(移風易俗)의 기능을 갖춘 음악으로 점점 자리 잡기 때문에 동동을 음악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옛 유교정치의 최대 슬로건이었던 예악사상에 입각한 교화(教化)와 고취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고려시대 악부에 유입되어 고려 속악으로, 조선시대 궁중정재로 이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뚜렷한 전통음악이란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에 있어서 요즘 같이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고작해야 과거 조상들이 남겨 놓은 몇 줄의 기록물과 예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몇 마디의 이야기를 모으고, 관련 조상의 흔적을 엿보고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구명하려 한다는 입장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그 동동의 역사적 가치만은 어느 전통음악보다 우수하고 예술성이 그대로 살아 쉼 쉬는 여수지역의 음악이며, 동동이 영원히 여수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호흡하며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노래로 불러 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 2.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

### 2.1 <동동>의 악부유입과 유래

2) 동동의 주제에 대한 논의도 학계에 다양한 것으로 안다. 곧, 相思・戀情의 노래, 戀情과 頌壽가 결합된 노래라는 견해가 다수이며 풍년가(豐年歌), 팔관회의 백희가무(百戲歌舞)를 할 때에 구호(口號)로서 불리어진 것, 절대자나 신 혹은 영웅을 대상으로 노래하는 것, 연민을 통해 한 여인의 처연미를 노래하는 것, 생의 환희를 노래하는 것, 죽은 님에 대한 송도지사(送道誌事)를 노래하는 것 등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 또한 수용자 층에 따라서 사랑의 비가, 송축가, 위무가 등으로 살펴 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음악 중 노래곡에는 크게 길고 짧은 노랫말이 있다. 긴 것을 장가(長歌), 짧은 것을 단가(短歌)라 한다. 장가는 가사(歌辭)와 별곡(別曲), 달별로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긴 노랫말을 의미하고, 단가는 초·중·종장 형식의 짧은 노래 즉 시절단가(時調)를 뜻하는데, 동동의 노랫말은 달거리 형태를 갖춘 장가에 든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노래곡의 노랫말은 학문이 높은 분에 의해 작사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각 지방의 민요에 도태를 두고 채집되는 경향이 많았다.<sup>3)</sup> 그 옛날 『시경(詩經)』의 제작이 그러했다. 채집된 민요는 민심을 살피고 정치의 잘잘못을 헤아리는 길잡이였으며, 여기에 시로써 품격을 갖춘 노랫말들은 백성과 군주를 하나로 묶는 동화(同化)를 뜻하였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는 ‘옛날에 채시관이 있었는데 임금은 풍속을 살피고 득실을 알아 스스로 바로 잡았다.(古有采詩之官, 王者所以觀風俗, 知得矣, 自考正也)’ 하고,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에는 ‘천자가 5년에 한번 씩 순수를 하고-(중략)- 태사에게 시를 찬술하게 하여 민풍을 살폈다.(五年一巡狩-(中略)-命太師陳詩以觀民風)’ 하고, 『국어(國語)』 주어(周語)에는 ‘옛날 천자가 정사를 들을 때 공경이하 여러 관원들에게 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古天子聽政, 使公卿至於列士獻詩)’는 문헌기록 또한 민심을 시로 표현하고 시를 노랫말로 표상한 행간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유풍은 이후 한무제 때에 악부(樂府)가 설치되고, 이 악부에서 채록한 시가를 악부시가(樂府詩)

3) 동동의 작자층은 노랫말의 다중적인 성격 탓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서민층과 궁중의 상층으로 나누어 분류해 볼 수 있다. 작자층을 민간으로 볼 때 십이월체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 궁내 상층계층과 민간층 공동으로 볼 때 별도의 세시풍속 노래들을 궁중의 가악담당자들이 십이월체 시형에 담아 속악의 가사로 정착시켰을 것이라는 견해, 민간의 세시풍속을 소재로 하여 궁중 상층에서 동동을 창작했을 거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민요적 성격을 강조한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인다. 즉 동동은 민요적 성격이 짙은 민간에서 퍼져있던 노래를 궁중에서 취택하여 정연한 형태로 정리되어 속악의 가사로 쓰인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볼 수 있다.

詩歌) 또는 ‘악부’라고 부르는데, 악부에 오른 민요시는 관현반주에 올려져 주로 궁중 연회(宴會), 제사(祭祀), 조회(朝會) 등에서 노랫말로 삼았다.

## 2.2 <동동>의 악부유입 시기

우리나라에서 노랫말이 채집된 것은 아마도 삼대목(三代目)<sup>4)</sup>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삼대목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이 책에 관한 기록만 있고,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888년(진성여왕 2)에 각간(角干) 위홍(魏弘)과 대구화상(大矩和尚)이 왕명에 따라 향가를 수집하여 엮은 것으로, 한국 최초의 가집(歌集)이다. 그리고는 중국 악부의 영향을 받은 듯한 고려시대 이제현(李齊賢, 1287~1367)<sup>5)</sup>의 소악부(小樂府) 11수와 민사평(閔思平, 1295~1359)<sup>6)</sup>의 6수가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 말 노래를 7언 절구의 한시로 옮겨놓은 당시의 민요랄 수 있다. 이러한 노랫말은 주로 백성의 삶, 부녀(婦女)의 정, 인정세태, 전설, 충신연주지정(忠

臣戀主之情), 효심, 세상사의 덧없음, 벼슬길의 위난, 귀향살이의 회한을 읊는 등 노랫말을 다채롭게 엮은 것이어서 민심의 시대적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음원이다.

그러므로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배경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합포만호를 지낸 유탁(柳濯, 1311~1371)<sup>7)</sup>이 ① 순천 장생포에 등장한 왜구를 물리친 공로를 칭송하여 군사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점과 ② 유탁이 사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군사를 사랑하였으나, 군기를 엄정히 함으로써 왜구들이 감히 침범치 못하였다<sup>8)</sup>는 사실이 후일 고려악부로 유입되어 고려 속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sup>9)</sup>는 설득력을 갖게 한다.<sup>10)</sup> 뿐만 아니라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시기를 놓고 당시 백성들의 노랫말을 악부시로 옮겨

4) 삼대목의 ‘삼대(三代)’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신라의 상대(上代)·중대(中代)·하대(下代)의 3대를 가리키고, ‘목(目)’은 집목(集目) 또는 요목(要目)·절목(節目)의 뜻으로서, ‘삼대의 집(集)’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5) 이제현(李齊賢, 1287~1367) 본관 경주(慶州). 자 중사(仲思). 호 익재(益齋)·역옹(櫟翁)·실재(實齋). 초명 지공(之公). 시호 문충(文忠). 1301년(충렬왕 27) 성균시(成均試)에 장원하고 이어 문과에 급제했으며 1303년 권무봉선고판관(權務奉先庫判官)과 연경궁녹사(延慶宮錄事) 등을 지냈다. 당대의 명문장가로 정주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조맹부 서체를 도입, 유행시켰다. 저서는 《효행록》, 《익재집》, 《역옹패설》 등이다.

6) 민사평(閔思平, 1295~1359) 본관 여흥. 자 탄부(坦夫). 호 급암(及庵). 시호 문온(文溫). 산원(散員)·별장(別將) 등 무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 감찰대부(監察大夫)를 지내고 여흥군(驪興君)에 봉해졌다. 충정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던 공으로, 충정왕이 즉위하자 공신의 칭호를 받고 첨의참리(僉議參理)·찬성사·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를 역임하였다. 시서(詩書)를 좋아하고 학문에 뛰어나, 이제현(李齊賢) 등과 함께 문명을 날렸다. 보물 제708호인 《급암선생시집》은 그의 시문집이다.

7) 유탁(柳濯, 1311~1371)은 고려 공민왕 때의 상신. 자는 春卿 본관은 高興 淸臣의 손자이다. 담탁 있고 무예에 능했으며 일찍이 음관으로 조정에 나가 원나라에 들어가 宿衛하고 돌아왔다. 監門大護軍이 되고 수년 동안 누진하여 고흥군에 봉군되고 원나라로부터 合浦萬戶로 임명되었으며 충정왕 때 찬성사를 지냈다. 공민왕 초에는 전라도 만호가 되어 사졸들과 甘苦를 같이하며 군기를 엄정히 하여 왜구들이 감히 침범치 못하였으며 장생포곡을 지어 악부에 올렸다. 다시 찬성사를 거쳐 左丞相이 되고 고흥부원군에 봉군되었다.(高麗史39卷-世家39-恭愍王2, 柳濯爲高興侯) 원나라의 紅巾賊을 정벌할 때 징병에 선발되어 수 천병을 이끌고 원나라 태사 脫脫의 막하로 들어가 高郵의 홍건적 두목 張士誠을 정벌하고 돌아와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를 거쳐 경상도순문사 겸 병마사 죄승상이 되어 홍건적의 난 1등공신이 되었다. 노국공주의 영전신축을 반대하다가 하옥 후 이어 석방되고, 신돈이 주살되자 그와 관련되었다는 무고로 교수형을 당했다.

8) 『嘉梧彙畧』, 『古樂府』, 三十一篇: 倭寇 順天長生浦 合浦萬戶 柳濯 赴援 倭望風潰 軍士悅之 作此 以美之.

9) 김세종, 「한국 음악속의 <동동>」, 『고시기연구』 제19집, 한국고시기학회, 2007, 33쪽.

10) 여기에서 다만 동동과 장생포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셋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중보문헌비고> 기록에 의하면 장생포곡과 고려가요인 동동이 동일한 작품인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동일 시가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둘이 전혀 별개의 노래라는 주장, 그리고 두 노래의 창작과정이 동일하다는데 입각하여 관련성만을 인정하는 주장이다. 이 중에서는 고려 속악 <동동>과 <장생포>는 동일 시가이며 유탁의 <장생포곡>은 다른 노래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놓은 이제현과 민사평의 생물 년대와 맞물린 악부시에 따른 사회적 유풍과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곧, 여수지방에 현령이 파견된 것은 몽고간섭기인 1350년(충정왕 2)으로 당시 빈번해진 왜구의 침입과 관련이 있다. 특히 순천 여수지방에는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왜구가 침범하였고 규모도 컸는데, 충정왕(忠定王) 대에 이 지방에 들어온 왜구는 한꺼번에 100여척 혹은 66척의 배를 몰고 왔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민왕 초에 유탁이 전라도만호로 부임한 것과 그는 평소 위엄이 있으나 군사들을 아끼고 은혜를 베풀어 군사들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였다는 성품이 왜구가 순천부 동쪽 60여리에 있는 장생포에 까지 침입하였을 때 유탁이 바로 나아가 왜구들을 바라만 볼 따름이었는데 왜구들이 그의 명성에 놀래 두려워 물러가 이 지방의 인명과 재화의 피해가 없었던 것을 군사들이 크게 기뻐하여 장생포가를 불렀다고 한다. 이 때의 장생포가를 유탁이 지었는지 민간의 구전민요를 유탁이 채록하여 악부에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구전민요로 보고 당시 왜구의 잦은 침략에 유탁장군과 이 지역 군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왜구를 격퇴하고 부른 개선 송가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은 유탁이 전라만호로 부임한 공민왕 즉위년 1352년 이후부터 유탁이 돌아간 1371년 사이일 것이란 계산과 이 시기 고려 악부의 채집시 풍조로도 짐작 가능하다. 이러한 정황은 공민왕 시절 반원개혁, 홍건적의 난, 오동정벌, 왜구토벌이라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살 필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사료1> 고려종정군(高麗從征軍) 파병: 1354년 7월~1356년 고려왕조가 류탁(柳擢), 염제신(廉悌臣), 권겸(權謙), 인당(印瑯), 김용(金鏞), 정세운(鄭世雲), 황상(黃裳), 최영(崔瑩), 이방실(李芳實), 안우(安祐) 등 휘

하의 고려군 2천 명을 강남반란군 장사성(張士誠) 토벌을 목적으로 원에 파병하였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의 쇠망이 목도되고 공민왕의 반원 개혁의 계기가 됨.

<사료2> 진해대첩(鎭海大捷): 1364년 5월 김속명(金續命) 휘하의 고려군이 진해에 침입했던 3천 명의 왜구를 격파하였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북방의 지속적인 외침으로 공백상태에 빠졌던 남방의 대왜구전이 호전.

<사료3> 오예포대첩(吾義浦大捷): 1358년 최영 휘하의 고려군이 오예포에 침입했던 4백 척의 왜구를 격파하였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왜구의 대규모 침략을 최초로 패배시켰던 선례를 남기게 됨.

이와 같이 고려 말 공민왕 시절 왜구의 침략이 극심했던 1354~1364년 무렵 전라도 함포만호로 부임한 유탁의 왜구정벌과 그 공훈을 빛내던 때를 같이 하여 장생포가이 지어진 것으로 사료되는 음악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한편, 『고려사』 악지에 소개된 속악을 살펴보면 고려 말 각 지역에 흩어진 민요가 고려 악부에 유입되어 속악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을 조금이나마 알게 한다. 이것을 정리 하면 <표1>과 같다.

<표1> 『고려사』 악지의 속악과 그 내용

	속악	내용 분류			
		내용	저자	지역	비고
1	무고(舞鼓)	춤/바다	이혼	영해	
2	동동(動動)	춤·놀이/바다			俚語
3	무애(無導)	춤/불교		서역	
4	서경(西京)	노래/칭송		평양	俚語

11) 위의 사료1~사료3까지의 내용은 고려 공민왕 시대 20대 사건으로 엠파스 지식검색 노하우에서 인용한 것이며, 아이디 boomazi님의 글이다.

5	대동강(大同江)	노래/칭송		평양	
6	오관산(五冠山)	노래/한탄		개성	가사있음
7	양주(楊洲)	노래/춘가		한양부	
8	월정화(月精花)	노래/풍자	제위만	진주	
9	장단(長湍)	노래/칭송		장단(경기도)	
10	정산(定山)	노래/칭송		공주	
11	벌곡조(伐谷鳥)	노래/풍자			
12	원흥(元興)	노래/연가		화령(동북면)	
13	금강성(金剛城)	노래/환희		개성	
14	장생포(長生浦)	노래/환희	유탁	순천부	
15	총석정(叢石亭)	노래/풍경	기철	강릉	
16	거사련(居士戀)	노래/연가			가사있음
17	처용(處容)	노래·춤/풍자		학성	가사있음
18	사리화(沙里花)	노래/풍자			가사있음
19	장암(長巖)	노래/풍자	두영철	장암	가사있음
20	제위보(濟危寶)	노래/한탄			가사있음
21	안동자청(安東紫靑)	노래/수절		안동	
22	송산(宋山)	노래/칭송		개경	
23	예성강(禮成江)	노래/한탄	하두강	황해도	
24	동백나무(冬栢木)	노래/사모	채홍철		
25	한송정(寒松亭)	노래/서정	장진공	강남(중국)	가사있음
26	정과정(鄭瓜亭)	노래/사모	정서		가사있음
27	풍입송(風入松)	노래/칭송			가사있음
28	야심사(夜深詞)	노래/칭송			가사있음
29	한림별곡(翰林別曲)	노래/칭송			
30	삼장(三臟)	노래/풍자			가사있음
31	백과 용	노래/풍자			
32	자하동(紫霞洞)	노래/칭송	채홍철		가사있음

『고려사』 악지에 소개된 고려 속악은 모두 32곡이다. 속악 대부분이 노래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동과 서경을 비롯한 24곡은 비어(항간(巷間)에 떠돌며 쓰이는 속된 말)로 되어 있다 하고, 조금이나마 저자와 지역적 배경을 살필 수 있다. 여기에서 바다를 소재론 악곡은 동동과 장생포 이외에 충렬왕 때 시중(侍中) 이혼(李混)이 영해(寧海)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바다 위에서 부사(浮査)를 얻어 이로써 큰 북을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컸으므로 이 북을 두드리고 춤을 추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무고(舞鼓)가 있고, 이러한 바다와 북의 연관성이 조선시대 성종 때 『악학궤범』에 무고·아박·동동의 관계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장생포가를 지어 악부에 상달한 유탁의 재주는 그의 후손 조선 조선중기 설화문학의 대가이자 『어우야담』의 저자로 유명한 류몽인(柳夢寅, 1559~623)<sup>12)</sup>으로 이어져 조선 후기 17~19세기에 이르기까지 악부시에 따른 다양한 노랫말들이 창작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잘 알려진 악부로는 동국악부(東國樂府)·해동악부(海東樂府)·영사악부(詠史樂府)·기속악부(紀俗樂府) 등에서 역사와 풍속, 세태를 풍자한 노랫말을 살필 수 있다.

12) 유몽인(柳夢寅, 1559~1623) 본관 고흥(高興). 자 응문(應文). 호 어우당(於于堂)·간재(良齋)·묵호자(默好子). 시호 의정(義貞). 1582년(선조 15) 진사가 되고, 1589년 증광문과에 장원하였다. 문장이 뛰어난 그는 1593년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이 되어 왕세자에게 글을 가르쳤다. 성리학의 대가 성혼(成渾)의 문인이기도 한 그는 스승의 교훈을 거역, 파문당하여 성혼이 죽은 뒤에 그를 모욕하는 글을 써서 비난을 받았다. 황해도관찰사·좌승지·도승지를 거쳐, 1612년(광해군 4) 예조참판·이조참판에 이르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벼슬을 내놓고 전전하다가 역모로 몰려 아들 약(淪)과 함께 사형되었는데, 정조 때 신원되어 이조판서가 추증, 홍양의 운곡사(雲谷祠), 고산(高山)의 삼현영당(三賢影堂)에 제향되었다. 설화문학의 대가였던 그는 《어우야담》·《어우집》 등의 문집을 남겼으며, 전서·예서·해서·초서 등 글씨에도 뛰어났다.

### 3. <동동>의 음악사적 의미

고려 말 여수지역 백성들의 승리의 송가로 불려진 동동의 음악사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 하나는 고대 시경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심의 동향과 풍속을 살피기 위한 노랫말의 채시(采詩)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채시에 따른 음악화는 조선시대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실마리를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필 수 있다. 그 대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문1) 세종 14년 (1432) 9월 1일(병진) :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謹)·허조(許稠)·정초(鄭招)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삼가 살펴 보건대, 주(周) 나라의 문왕(文王)이 천명을 받았으나, 무왕(武王)에 이르러 드디어 상(商)나라를 극복하여 천하를 차지하였고, 무왕이 돌아가매周公(周公)이 성왕(成王)을 도와서 예(禮)를 마련하고 악(樂)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편(詩篇)》에 나타난 것으로써 상고한다면, 정풍(正風)은 문왕(文王) 시대의 풍화가 미친 민속(民俗)의 시(詩)를 채집하여 이를 관현(管絃)에 올린 것이니, 선왕(先王)의 풍속의 성대함을 나타내어 밝힌 것입니다.

(인용문2) 세종 15년 (1433) 8월 13일(계사) : 경연에 나아가 《성리대전》을 강론하고, 칠월시를 만들라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기명 따위의 삼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깨우침에 진실로 유익한 것이다. 내가 빈풍칠월도(飓風七月圖)를 보고 그것으로 해서 농사짓는 일의 힘들고 어려움을 살펴 알게 되었는데, 나는 보고 듣는 것을 넓혀서 농사일의 소중한 것임을 약간 알지마는, 자손들은 깊은 궁중에서 성장하여 논밭 갈고 곡식 가꾸는 수고로움을 알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가탄할 일이다. 예전에는 비록 궁중의 부녀들이라도 모두 누에치고 농사짓는 책을 읽었으니, 빈풍(飓風)에 모방하여 우리 나라 풍속을 채집하여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찬미하는

노래를 지어서, 상하 귀천이 모두 농사일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서 영원한 세대까지 보아 알게 하고자 하니, 너희들 집현전에서는 널리 본국의 남세·부과금·부역·농업·잡업 등의 일을 채집하여 그 실상을 그리고, 거기에 노래로 찬사를 써서 우리 나라의 칠월시(七月詩)를 만들라.” 하니,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신이 의기도(欵器圖)를 얻어서 벽에다 걸어 놓고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보오니 역시 꽤 많은 수양이 되옵니다.

(인용문3) 중종 24년 (1529) 5월 20일(갑인) : 시강관(侍講官) 원계채(元繼蔡)는 아뢰기를 “옛 사람들의 시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제작(製作)에만 뜻이 있는 것과는 달라서, 민요(民謠)의 가사가 모두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정사의 잘잘못과 풍속의 융체(隆替: 진보와 퇴보)를 여기에 따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채시(採詩: 중국 고대 주(周)나라 때에 풍속과 정치를 살피기 위해 각 지방의 시가(詩歌)를 채취(採取)하던 법)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후세에 와서는 채시하는 법이 없어져, 옛 사람들이 이른바 시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향간(巷間)에서 언어(言語)로 흥얼거리는 내용의 화평(和平)과 수원(愁怨)에 따라, 국정의 잘못과 풍속의 미악(美惡)을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시대에는 고금(古今)의 차이가 있지만 민요의 가사가 성정(性情)에서 나오는 것은 고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 ‘은 나라의 일이 한 사람의 몸에 달린 것을 풍(風)이라 한다.’ 했습니다. 대저 풍속과 교화(教化)가 아름답거나 악하게 되는 것은 모두 위에 있는 분에게 달렸습니다. 만일 풍속을 고치고 세속을 바꾸려면, 반드시 위에서 인도하여야 하는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려 동동의 송가정신이 조선 세종대왕 때 악곡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대왕은 문덕과 무덕을 기리는 보태평과 정대업을 지어 조선왕조의 역대 왕위의 공과 덕을 기리는데, 특히 태조 이성계가 왜구침략을 섬멸한 공훈을 칭송하고 찬양하기 위해 정대업 중 ‘赫정(赫整)’ 제3변을 지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이것이 고려 말 유탕의 왜구

섬멸은 아니란 왜구를 물리치고 악부에 유입되어 속악으로 자리 잡은 동동이나 이성계가 왜구를 섬멸한 것을 음악화 한 것은 그 맥락은 이어지는 것이어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으로 이어져 오늘날 까지 연행되고 있는 왜구를 물리치고 칭송하던 잔형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해양음악의 사적 연구라는 일면으로 살펴본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과 시기 나아가 음악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주지하듯이 동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거리 노래로 첫째, 동동의 유래 둘째, 동동의 작자층 파악 셋째, 동동과 장생포의 관계 넷째, 동동과 아박춤의 전승과 춤사위 구조 다섯째 동동의 제목에 따른 견해 여섯째 동동의 노랫말구조와 형식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학술적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문헌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새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① 고려 말 공민왕 시절 왜구의 침략이 극심했던 1354~1364년 무렵 전라도 합포만호로 부임한 유탉과 동동, 장생포가를 완성하여 고려 악부에 유입된 것으로 그 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②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배경은 고대 시경의 채시정신을 이어받아 민심의 동향과 풍속을 살피고 이풍역속하는 예악정신에 입각한 노랫말 채시(采詩)의 유풍을 이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③ 음악사적 의미는 채시의 유풍에 따른 음악화를 들 수 있다. 곧 채시 중에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과 풍속을 노래한 노랫말은 음악화를 통하여 백성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함께하려는 송가정신에서 음악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송가는 대부분 고취적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동동의 고려악부 유입과 그에 따른 송가정신은 조선 초기 용비어천가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때 창제한 정대업 중 ‘혁정(赫整)’ 제3번에서도 그 유풍을 살필 수 있겠다.

#### ■ 참고문헌

##### 1. 원전 사료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가오고락』, 『익재집』, 『금암선생시집』, 『시경』, 『국어』, 『한서』, 예문지, 『예기』.

##### 2. 단행본 및 논문

- 강명혜, 「고려속요의 송도성」,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회, 1999.  
 고혜경, 「고려속요 시형 연구」,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1995.  
 김세종, 한국 음악속의 <동동>,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학회, 2007.  
 김준욱, 「장생포와 동동」, 『한국어문학』 제35집, 1995.  
 박노준,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5.  
 변경택, 「동동의 원형비평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1.  
 서성자, 「<동동>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신은경, 「<동동>의 형성과정 및 작자층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23.  
 이민홍, 「민족악무의 맥락과 동동가무의 전승」, 『한국 고전의 문예적 연구』  
 이성주, 「동동의 사회학적 연구」, 『관대논문집』, 1977.  
 이영태, 『고려속요와 기녀』, 경인출판사, 2004.  
 이용백, 「동동 구월령 어석고」, 『국어국문학』 고전문학편 77.  
 장진호, 「동동고」, 『새국어교육』 40호, 1984.  
 전규태, 『한국시가의 연구』, 고려원, 1989.  
 조유미·김대행, 「동동에 나타난 화자의 성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최용수, 『고려가요 연구』, 계명문화사, 2003.

13) 세종 29년 (1447) 6월 4일(을축) 용비어천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등을 공사간 연향에 모두 통용케 하다. 참조.

최원기, 「동동에 대한 고찰」, 『부산공업대학교논문집』, 1969.

최원기, 「동동에 대한 고찰」, 『고려속요 집성』, 2002.

허남춘, 「동동과 예악사상」,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해양음악과 문화』 제2회 국립남도국악원 학술회의 (남원:국립남도국악원 세미나실 및 전악당, 2005.7.15~16)

<투고일 : 2008. 6. 30. 심사일 : 2008. 7. 17. 심사완료일 : 2008. 8. 12.>

<Abstract>

## Introduction of <Dongdong> into Goryeo Music as Marine Music and Its Meaning in Music History

Kim, Se-jong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wo different aspects. One of them is the introductory period of Dongdong to Goryeo music as marine music, and the other is its musical meaning. As we know, there are various academic studies on Dongdong in that it is the first Dalgeori(monthly events) song in our country, However, private studies based on bibliographical examination on it are very scanty. Therefore, this study is a private study on marine music rather than studies on genre of Dongdong, focusing on bibliography.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that Dongdog was introduced to Goryeo music as follows: ① In about 1354~1364 where Japanese enemies frequently invaded our country at late Goryeo, Yutak completed Dongdong and Jangsaengpoga, which was introduced to Goryeo music. Furthermore, ② it succeeded to the custom of 'Chaesi' of ancient Books of Odes which looked at trend and manners of the public based on customary music. And, ③ its musical



meaning is that it was developed through the custom of 'Chesi(collecting song)'.

The meaning of the words that song wonderful life and custom of the public is found at the spirit of odes that share grief and joy together with the public. Most of the odes have inspirational nature. Therefore, introduction of Dongdong into Goryeo music and the spirit of odes had a great influence on production of Yongbiochonga of early Joseon Period, and 'Hyeokjeong' 3 of Jeong-dae-up created under the regime of King Sejong shows its custom.

**Key words** : Marine music, Dongdong, Chesi, Jang-saeng-po-ga, music